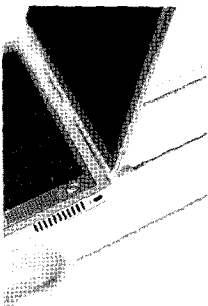




— 조합 · 업계소식 [www.kcca.or.kr](http://www.kcca.or.kr)



- 2010년도 관세감면 대상품목 축소로 업계 충격 클 듯
- 벙커C유 대체재, 부생연료유 2호 공급 시작
- 품틀거리는 골판지시장, 신시장이 열리는 곳
- 패키징기술지원센터 이전
- 제일산업(주) 350억원 광주시 투자 공장설립
- 국산 폐지가가 내렸다. 원지가격 인하 가능한가(?)
- 세창화학(주) 천연물질로 기저귀, 생리대용 접착물질 만들어

## 2010년도 관세감면 대상품목 축소로 업계 충격 클 듯

우리조합은 매년 8~9개 골판지포장제조설비에 대하여 관세감면 지정을 받아 골판지포장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왔는데 2010년도에는 대상품목이 4개가량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골판지포장조합은 2010년도 대상품목을 전년과 같이 9개 품목을 선정하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난 16일 지경부로부터 5개 품목은 삭제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삭제품목을 살펴보면 HS코드분류상 상품명에 단독으로 되어있는 설비의 경우 예외없이 삭제되었고, 절단기, 슬리터, 적재기 등 여러 업종에서 공유하는 분류번호만 살아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양도세, 상속세, 증부세 등 세금감면의 결과, 세원확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보여 지지만, 골판지포장업계의 경우 2006년부터 진행된 업계 구조조정 작업이 2010년도 완성되는 시기로 전망될 정도로 내년도 관세감면 혜택이 어느 해보다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업계의 상당한 충격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통보 받은 즉시 골판지포장조합은 긴급 업무연락형태로 조합원사에 알리고, 2009년 수입실적과 2010년도 수입 예정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긴급히 실시하고, 골판지포장산업은 국제적으로 품질혁명, 기술 혁명이 진행중일 정도로 치열한 설비증설경쟁이 전개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생산성향상 및 품질혁신을 위한 설비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9개 설비 모두가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 병커C유 대체재, 부생연료유 2호 공급 시작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줄여서 최대한 억제하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2010년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청정연료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의거 황 및 질소산화물의 규제치 허용기준을 2010년부터 180~200ppm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발표한다. (아래표 참조)

이에 따라 골판지포장조합에서는 조합이사회 안건으로 “병커C유 대체재 공동구매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 하고 조합원사에 방문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지난 12월 4일 (주)삼보판지 부천공장에 16,000L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 14일 16,000L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주)삼보판지에서 시범 사용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하던 병커C유 대비 열량 및 사용량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소산화물 검측결과도 기존대비 1/3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료의 예열이 필요 없는 점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장점이라고 (주)삼보판지 관계자는 언급하였다. 하지만, 부생연료2호의 특성상 방향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고무 및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져 있는 가스켓 등은 내고무성 강화 재질로의 교체가 필요한데 현재 모두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

그동안 병커C유를 사용하던 보일러 설비를 특별한 변경없이 사용하는 부생연료2호의 특성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제15조)

구 분	변경전( ~ 2009. 12. 31)	변경후( ~ 2010. 1. 1)	
질소산화물 (NO2)	액체연료 사용시설	배출가스량이 시간당 10,000m <sup>3</sup> ~ 110,000m <sup>3</sup> 미만인 시설	증발량이 시간당 10Ton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만 Kcal 미만인 시설
	배출허용 기준	가) 기존시설 : 250ppm이하 나) 신규시설 : 200ppm이하	- '07. 1. 31 이전 : 200ppm 이하 - '07. 2. 1 이후 : 180ppm 이하

## 꿈틀거리는 골판지시장, 신시장이 열리는 곳

국내 경기가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골판지포장시장 또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08년도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외증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6%로 뒷걸음질치고 2009년도마저도 생산실적 면에서 별수없이 부진한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포장화가 미진한 분야에서 새로운 포장수요가 창출되고 있어, 이를 흥미롭게 지켜봐도 좋을 듯싶다.

대표적인 분야가 택배수요의 증가로 **택배포장용골판지상자**의 공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포장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은 통계를 잡을 때 주요수요부문으로 편성한지 오래일 정도로 택배분야의 포장재 점유비가 일정 규모를 점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금년들어 유난히 큰 폭의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금년 1/4분기부터 막걸리의 대유행에 힘입어 플라스틱 회수용기를 대체하여 골판지포장화로 이행되면서 막걸리포장용골판지상자가 최소 100억원 가량의 시장을 앞두고 있으며, 무포장 산물출하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수박도 대부분 골판지 또는 회수용 목재단단박스로 포장화 되

고 있어 수박포장용골판지상자의 수요 급증현상을 숨죽여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부디! 부디! 2010년 경인년에는 지퍼진 불씨가 불꽃이 되고, 활활 타올라 들불처럼 번져서 골판지포장시장의 성장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일선을 누비는 영업맨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패키징기술지원센터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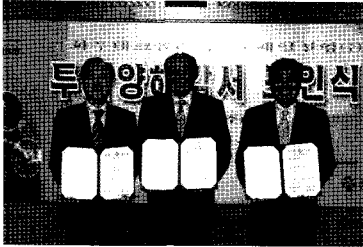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지원센터(센터장 심진기)에서는 지난 11월 18일 사무소 이전을 계기로 2009년 국내 패키징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단체 상근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패키징산업의 분야별 산업통계 구축현황과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등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 분야별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업계간 상호교류를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량물포장협회 김형빈 부회장은 중량물포장업계의 특성상 제작 및 포장 이론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수요는 상당히 있으며, 실제로 협회차원의 교육도 활성화 되어 있지만, 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강화된다면 일본 업계의 교육수준과 상응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기대를 나타냈다.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조합자체적으로 연간 3~4회의 집합교육을 실시하면서 재직자 직무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의 역할은 다른 단체와 경쟁을 하는 집행기능보다는 타단체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집중된다면 상생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원활한 소통이 있도록 협력을 주문하였다. 한편 패키징기술지원센터는 이전에 따른 개소식을 12월 1일 15시에 개최할 계획이다.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1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2층)

## 제일산업(주) 350억원 광주시 투자 공장설립

골판지포장조합 회원사로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기업인 제일산업(주)이 광주광역시 평동공단에 35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손명섭 제일산업(주) 대표이사는 23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내년 3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1975년 제일판지공업으로 출발한 제일산업(주)은 아세이제지(주)계열회



사로 주로 전자포장용골판지상자등 공업용 골판지포장재를 주로 생산하는 골판지포장업체 상위기업으로 내년 1월 평동 산단에 2만8000여㎡ 규모의 공장을 착공한뒤 9월부터 본격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제일산업은 광주지역 거점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담양공장 과 군산공장에서 필요로한 골판지시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호남지역 골판지포장업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100억원대 최첨단 골판지 제조설비를 도입하여 120명의 지역민 고용창출과 연간 700억 원대의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광태 광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신념과 믿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며 “내수경기 침체의 불안한 경제여건 속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산 폐지가가 내렸다. 원지가격 인하 가능한가(?)

최근 국산폐지 가격이 인하되면서 지합업체를 중심으로 골판지원지 가격이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실제로 국산 폐지 가격이 톤당 14만원 내지 15만원을 호가하던 것이 11월들어 1~2만원 조정을 받아 거래되고 있어, 이러한 추적이 역시 주장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조정된 골판지원지가격을 살펴보면 골심지의 경우 355천원이고, 당초 산정하였던 가격 보다 2만 5천원 낮은 가격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만 5천원만큼의 기회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골판지원지업체의 OCC의 인하 매입은 극히 당연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골판지원지업체는 과당경쟁이 치열했던 과거의 경쟁질서를 벗어나 상당한 구조조정을 이루면서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경쟁 완화 장치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과거 OCC가 수출을 생각지 못하였을 때에는 골판지원지는 골판지수요가 넘치면 가격이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 되면 당연히 가격을 내린다는 예상할 수 있는 환경을 아직도 생각한다면 큰 오류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2007년 이후로 OCC는 연간 30만톤 이상 수출하고, 골판지원지 수출도 원지 수입량을 초과할 정도로 원지업체는 이미 시장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골판지포장시장에 피동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골판지원지 가격을 예측하는데 참고될 만한 사건이 얼마전 터졌다. 이를 요약해 본다면, 작년 상반기 모든 국제 원부자재가 폭등을 하면서 원유대란에 이어, 애그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난무하였었다. 중국 인도 등의 경제발전은 기하급수적인 식량자원을 필요하게 하고, 원유가격 폭등으로 대체 에너지를 식량자원에서 찾으려는 시도 등으로 식량자원의 소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식량자원은 고갈상태를 면치 못하여 공급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공급가격도 급등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는데, 경제위기를 거의 극복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도 부합한 이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9월까지 하향 안정화 곡선을 그리던 시카고 옥수수 선물 가격이 10월달에 폭등하여 9월 말 대비 현재 거의 50%수준까지 인상된 상황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식량자원을 포함한 원료산업은 가까운 시일내로 큰폭의 가격 앙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며, 임산물인 펄프 및 종이 분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0월 28일 국내 최대 크라프트 라이너지 공급업체인 엔소유로칸의 공장 폐쇄 발표도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원료인 목재칩 가격의 폭등, 캐나다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공장 폐쇄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지난달 10월 28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금년 3/4분기에 1억 3천 8백만불의 자산손실을 기록하여 불가피하게 내년 1월 말일자로 영구적인 폐쇄가 최선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의 행간을 분석해 보면, 과당경쟁이 심화되어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수출 위주 엔소유로칸 공장의 폐쇄는 공급초과 현상을 공급 부족현상으로 변화시켜 시장 분위기를 일거에 뒤바꿀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향후 경기 회복기와 원자재 가격 인상 흐름을 동시에 탈 경우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보면 현재의 상태가 폭풍 전의 고요상태가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본다.

따라서 국산 폐지가격이 다소 내렸다 한들 골판지원지 가격의 연동 인하는 무망한 일 일 것이며, 오히려 원료분야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골판지포장업계는 국내외 시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골판지포장업계 지함업계 모두 지속 발전을 고민하는 공감으로 골판지포장시대를 함께 열어야 할 것이다.

## 세창화학(주) 천연물질로 기저귀, 생리대용 접착물질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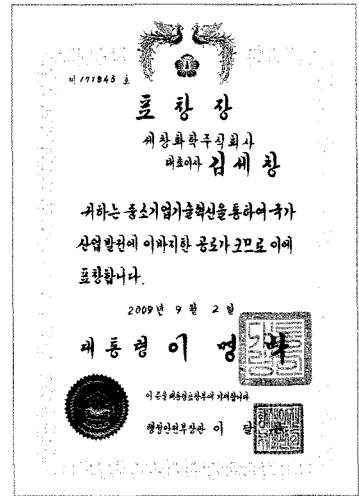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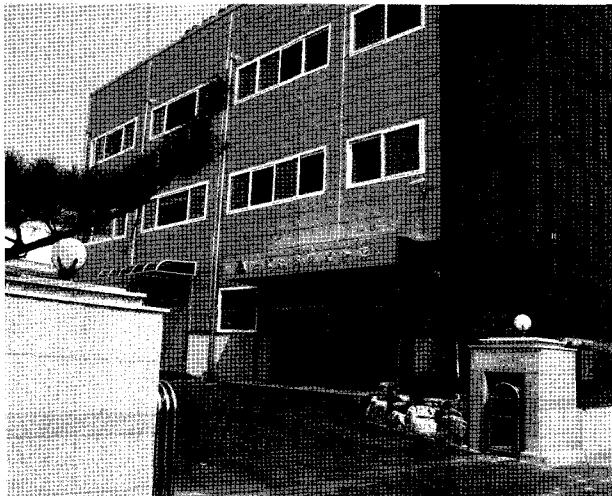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세창화학(주)(사장 김세창)은 천연물질로 유아용 기저귀, 티슈, 생리대 등 위생용품에 안전하게 기존 고분자 유기 용제(Solvent)를 배제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물질로 제작한 천연 바인더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창화학(주)가 개발한 천연 바인더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나무숯, 양파, 솔잎 등 천연물질을 나노 단위로 분쇄해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벽지를 인쇄하거나 커튼을 염색하는 작업에 적합하며 유아용 기저귀와 티슈, 여성 생리대 등 위생용품 소재로도 적합하다. 또 인쇄 공정과 식품 포장, 의약품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다. 김세창 사장은 "천연 바인더는 천연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포름알데히드 등 VOC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환경오염 물질 기준이 강화되는 것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기술로 중소기업청에서 9월2일 열린 '제10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행사에서 세창화학(주)는 기술혁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세창화학(주)는 1977년 창업한 이래 꾸준한 기술투자와 설비투자를 통해 플렉소 잉크, 그라비아 잉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ISO/KSA 9002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바 있다. 김세창 사장은 "골판지, 지대, 필름 등 산업용 인쇄잉크와 코팅수지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로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사이드

### 한덕판지

- 생산부 이남화 공장장 이사 → 이남화 상무이사 공장장
- 생산부 이규한 부장 → 이규한 이사